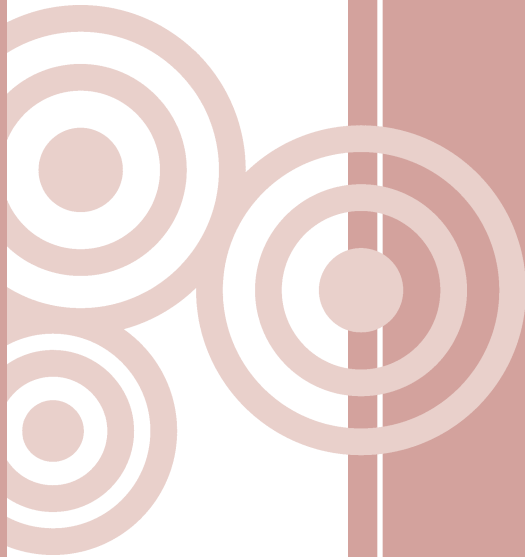


신임 교무처장 인터뷰 - 김명환(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특집

## 신임 교무처장 인터뷰 - 김명환(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 CTL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관계를

- 신임 교무처장 인터뷰 / 김명환(수리과학부 교수)

## 특집

지난 9월 22일 월요일 오후 3시 대학본부 3층에 위치한 교무처장실에서 신임 교무처장과 만나 서울대가 당면한 자유전공학부 준비와 CTL 운영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정병기(이하 '정') :**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임교무처장으로서 뜻 깊은 사업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무처의 새로운 정책 또는 중점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환(이하 '김') :** 제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전공학부와 교수정년 보장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전공학부는 기초교육원의 강명구 원장님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만들어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만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순 정도면 교과과정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에 사상 처음으로 교수 승진 정년 보장 심사에서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정년보장과 승진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상으로 승진 규정은 있는데 정년 보장 규정은 없는 셈이죠.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규정상으로 먼저 분리하고 정년 보장 심사 절차나 기준같은 것을 정해야 합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사안이 사

\* 인터뷰 :

**정 병 기**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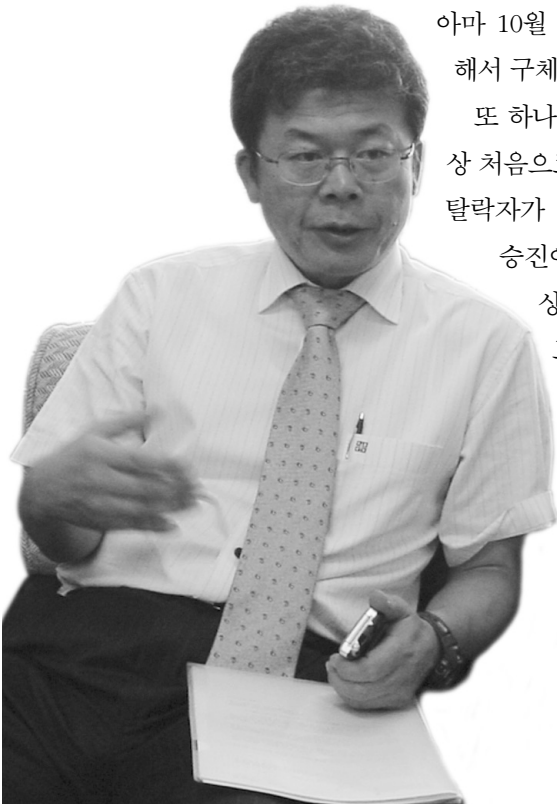
**이 해 정**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러닝지원부 연구교수

글 :

**김 영 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팀장



안인지라 무척 힘든 일이 되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이 두 가지를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 : 말씀하신 두 가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교육과 직접 관련된 자유전공학부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및 CTL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현재 기초교육원 내부에서만 실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김 : 기초교육원 내부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유전공학부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단의 교수들은 기초교육원 소속도 아니고 자유전공학부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서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교육원 내부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진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기초교육원 원장님이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기초교육원의 참여 비중이 높은 편이죠.

정 : 내년부터 시행될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시모집부터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구체적 상과 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 실제로 많은 서울대 선생님들이 ‘자유전공학부 어떠냐?’ 하고 물으면 ‘아, 그거 괜찮다’ 고 하다가도, 자녀나 조카의 진학과 관련돼 질문을 받으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경우는 여건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자유전공학부를 출범시키기로 지난 1학기 말에 결정한 뒤에 준비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플랜을 짜기 시작한 것은 제가 취임한 다음부터였습니다. 본격적인 준비는 8월부터였지만 실제로 학부대학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를 출범시키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선배가 없다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처음 생긴 학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전공학부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 :** 결과적으로 자유전공학부가 내년 초에 출범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김 :**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시스템과 같은 부분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준비를 다 해 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그럴 때 일단 시작하기로 결심부터 하고나서 준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학부대학 개념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또한 자유전공학부는 그 안에 새로운 전공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전공들을 잘 융합해서 학생들을 바람직하게 교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즉, 기존의 전공들을 다양한 형태로 융합한 융합 전공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융합 성격의 교과목들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 :** 자유전공학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연구윤리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교육 윤리 강화는 신임 총장님의 주요 공약이기도 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윤리 강화를 위해 세운 계획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학습윤리와 글쓰기 가이드북 발간과 시험 및 글쓰기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관련 제정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 학생들의 연구윤리에 관한 강화 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김 : 글쓰기에 대해서는 윤리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지난번 의대 학생들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윤리 규정도 없는데 글쓰기 윤리 규정만 만들어 놓는 것은 아무래도 이치에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어, 그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한 학생들의 윤리 규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 : 그렇다면 학생들의 연구윤리, 학습윤리와 관련된 지침이나 가이드북은 언제쯤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가이드북으로 낼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처벌 조항을 만들지 못해서라고 하던데요.

김 : 빨리 하면 이번 학기에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글쓰기에 관해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더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리 규정에 처벌 조항까지 넣을 것이냐, 아니면 처벌 조항 없이 윤리 규범 형태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곧 결정하겠습니다.

정 : 가이드북은 가이드북대로 하고 처벌은 학칙으로 정해서 분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칙에는 일반 시험의 부정행위와 같은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김 :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야단만 치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F학점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 : 글쓰기 부정 관련해서는 인터넷 표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색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 대학에서는 턴잇인(Turnitin)이라는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도입해 활용을 하고 있고, 고려대에서는 독자 개발을 해서 표절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던 외국에서 도입을 했던 간에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실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서울대에서는 이와 같

은 프로그램 구축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김 :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니다. 표절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 : 잘 알겠습니다. 이제 CTL과 관련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CTL은 교수와 학습 및 이러닝(e-Learning)과 글쓰기로 나뉘어 교육과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무부처장이 CTL 소장을 맡는 등 교무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교무처에서 볼 때 CTL와 관련된 다른 제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CTL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 외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 : 실은 제가 양호환 CTL 소장님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시급한 사안들 때문에 CTL의 실제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CTL에서 하는 사업에 관해 대강은 알고 있지만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CTL 업무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이러닝(e-Learning)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닝 수업은 제가 자연과학대학 교무부학장이었을 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닝이 강의의 보조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라면 대찬성이지만, 그 것 자체로만 강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수강하는 학생이 누군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듣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을 학점을 쉽게 취득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듣지 않고도 접속만 해서 수강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수강한 학생에게 학점을 주게 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컴퓨터 앞에 카메라를 놓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곤란하겠다는 생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혜정(이하 '이') :**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이러닝은 100% 블렌딩으로, 정책적으로 추진 해 왔습니다. 이러닝은 지난 정운찬 총장님 때부터 추진해 왔는데, 이는 적극적인 이러닝의 활용을 통해 수업의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그 질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학생들에 비해 잘 사용하지 않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의 독려 차원으로 이러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완전하게 이러닝만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김 :** 교수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오신 김에 CTL에서 운영하는 eTL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이 :** 예. 원래 etl이 나오기 전에는 전산원에 이클래스(e-class)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경우 쓰는 사람이 적어 10% 정도의 사용률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는 교수님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학기 초에 6,700여 개 강좌가 전부 개설됩니다. 일단은 이러한 유인 전략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30~40%까지 증가하다가 현재는 50~60% 정도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활발하게 활용하는 교수님들은 전체의 25%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학생들끼리 네이버 카페, 다음 블로그와 같은 사설 인터넷 커뮤니티를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는 개인 홈페이지나 다른 서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평균 20~25% 이상은 매일 사용되고 있고, 하루에 만 명 이상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 :** 상당히 잘 되고 있네요. 지난 2005년에 미국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의보조 컴퓨터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강의노트와 숙제, 시험, 모범답안 등을 다 올려놓고, 학생들에게 공지사항도 전달할 수 있고, 학생들과 직접 일대일로 대화할 수도 있어 무척 편리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 eTL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도 미국에 있는 제품을 구입해 온 것입

니다. 그런데 내년 1학기부터 이 제품의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3년에 1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했지만,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 인력을 양성한 뒤 개발해서 우리의 자체 시스템을 갖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테지만, 그 방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 저는 수학하는 사람이라 대부분 판서와 구두강의로 진행하는 스타일이라서 CTL의 교수법 지원 프로그램을 써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자연대 교수회의에서 교수님들한테 자신의 강의를 한번 촬영해서 볼 것을 권장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CTL의 사업이 교수와 학습 활동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호환 소장님과 의논하여 CTL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결국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CTL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강의에 도움이 된다' 와 같은 홍보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 공대 교수님들의 경우 강의 촬영을 받고 일정량의 교수법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 사항입니다. 자연대는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공대 교수님들도 반대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하셔도 일단 하시고 나면 자신의 강의를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며, 만족도도 상당히 높으신 편입니다.

**정 :** 인터뷰 다닐 때마다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CTL의 홍보 얘기입니다. CTL 차원에서 홍보에 더욱 신경을 쓰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CTL이 서울대 구성원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